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AI 인재 양성 사다리 '주목'

초등부터 영재고·사관학교·대학원까지 단계별 교육
 구글·NHN 연계 맞춤형 인재...“미래먹거리 선점”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의 단계별 AI 인재양성 사다리가 주목받고 있다.

초·중등 학생의 관심 유도를 통한 AI 입문교육부터 AI영재고, 대학의 기업 맞춤형 전문교육, AI 대학원, 인공지능사관학교까지 탄탄한 교육시스템이 돋보인다.

광주시는 19일 “실력있는 AI전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시중심도시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탄탄한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AI 인재 저변 확대를 위해 해선 초·중등 단계부터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올해부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주월동 옛 광주과학고 부지에 교육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강사를 육성해 AI, 로봇,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신기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12월 개관 예정인 SW미래채움 광주센터는 2025년까지 1만여 명의 지역 학생들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AI영재고 설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기획영역비 10억원이 반영돼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전남대(에너지), 조선대(헬스케어), 호남대(자동차), 광주과기원(원천기술) 등 4개 대학을 AI 융합대학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대학과의 긴밀히 공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24년까지 150억원(국비 127억원, 시비 23억원)이 투입된다. 광주과기원 A대학원은 최근 AI 1호 박사를 배출하는 등 AI 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AI사관학교는 2020년 첫 모집을 시작으로, 지난 3년 간 탄탄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통해 총 600여 명의 우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 인원을 18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고, 단일과정 이던 커리큘럼도 복수 과정으로 확대했다.



무등야구장 재개장 기념행사

19일 오후 북구 무등경기장 재개장 기념행사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내빈, 선수단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행정력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인재양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남대, 구글 클라우드의 공식 교육 파트너인 ㈜아이코어이엔씨와 협약을 맺고 AI 융합인재 양성에 힘을 쏟

고 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수행사인 NHN클라우드 광주연구개발센터도 최근 사무실 개소와 함께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본사 파견 인력은 물론 지난해 9월

개소한 NHN 아카데미에서 7개월간 웹개발자, NHN 인증과정을 수료한 지역 전문인력도 함께 근무한다. 센터를 통해 매년 30여 명씩 180명이 채용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맞춤형 인재양성

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초·중·고·대학, AI 사관학교 등 각자 역할에 맞게 지속적으로 협력해간다면 광주가 명실상부 시중심도시로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주 기자

‘야구산실’ 광주 무등경기장 8년만에 스포츠 테마공원 변신

489억원 들여 리모델링...야구장·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광주·전남지역민을 울고 웃게 했던 지역야구의 산실 무등경기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8년만에 재개장했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3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경선 시교육감, 광주시의원, 초등부 야구선수들과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경기장 재개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재개장 기념식은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경과보고에 이어 광주지역 7개 초등학교 야구부선수를 초청한 가운데 이벤트 경기로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과 대표선수, 교육감 등 주요 내빈의 동시 구로 시작된 이벤트 경기는 A팀(대표초, 서립초, 서석초, 화정초)과 B팀(송정동초, 수창초, 학강초)으로 나뉘어 5이닝으로 치러졌다.

광주시는 기능 축소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무등경기장을 지난 2016년부터 총사업비 489억원(시비 352억원, 국비137억원)을 투입, 야구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스포츠 테마공간으로 조성했다.

무등경기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본부석을 새롭게 교체하고,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지하2층) 1037면을 조성했다.

또 아마추어 야구장과 클라이밍장, 산책로, 조깅트랙,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췄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을 울고 웃게 했던 지역야구의 역사적 장소가 시민과 아마추어야구인, 미래꿈나무인 유소년 야구선수까지 아울러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에 광주 KIA 챔피언스 필드가 건립되면서 2013년 10월 4일 경기를 끝으로 프로야구 경기는 더 열리지 않았다.

/김도기 기자

신안 흑산도에서 통일신라시대 사찰 건물지 확인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조사 현장자문위원회 개최



흑산도 무심사지 중심 건물지(추정 금당지) 전경

신안군 흑산도에서 통일신라시대 사찰 건물지가 확인돼 학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안군은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현장자문위원회를 최근 발굴현장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흑산도 무심사지는 상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나 장건연대와 폐사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무심사지에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남아있으며, 지표조사와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무심사선원(無心寺禪院)’ 명기와편이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의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사역 확인과 사찰의 성격 규명 등에 대해 명확한 결과들이 확보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스님)

를 통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축대, 석렬 4기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중심사역의 통일신라시대 금당지는 고려시대 중기 건물지 아래에서 중복된 상태로 확인됐다.

출토 유물은 인화문 토기편을 비롯해 금동불상 발편, 중국제 도자기편, 연화문 막새편 및 ‘중원갑진년육월조(中元甲辰年六月造)’ 명(1244년 추정) 막새편 등이 출토됐다.

흑산도는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서금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흑산도 관사와 봉수대가 기록돼 있다. 또 무심사지 주변 상라산성, 세사터, 관사터 발굴조사에서는 중국제 동전과 도자기가 다수 확인돼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동아시아 남북항로의 해상 무역 거점항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오염수 방류반대 분명히 해야	2면
이재명, 불체포 포기 선언	3면
전남 구제역 위기 경보 하향	9면

국가무형문화재 **법성포 단오제**
 법성포 1천년 단오제에 축하하다

단오, 만사형통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

- 일시 : 2023. 6. 22.(목) ~ 6. 25.(일) 4일간
- 장소 :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및 법성포 뉴타운 일원 ● 문의 : 061-356-4331
- 주최 / 주관 :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 제전위원회
- 후원 : 문화재단, 국립무형유산원, 영광군의회,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영광군수협, 굴비농협

한곡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분부장 최현규	서영광농협 조합장 강상호	정주세마을금고 이사장 박주경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지부장 조기명	백수농협 조합장 조형근	영광군산림조합 조합장 정태범
영광농협 조합장 정길수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 이사장 김경욱
굴비농협 조합장 김남철	영광군수협 조합장 서재창	